

##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상전(象傳) 불이 하늘에 있는 것이 대유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악을 막고 선을 드날려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른다[火在天上大有, 君子以遏 惡揚善, 順天休命].

내가 생각건대, 불이 하늘 위에 있고 하늘의 양은 위로 오르며 불기운이 더욱 맹렬하게 타올라 이두움을 제거하고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늘이 순응한다. 양이 위로 올라감에 군자는 이 상을 보면서 ‘악을 막고 선을 드날려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른다.’ 하늘이 명한 성은 본래 선할 뿐 악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음은 불의 성질이 위로 타 올라 가는 것과 같다.

구이(九二) 큰 수레로 실을이나 가는 곳이 있어도 허물이 없다[大車以載, 有攸往, 无咎].

내가 생각건대, 이 패가 대유인 이유는 이 패가 크게 중하며 육오의 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큰 양으로서 아래에 있는데 위에 육오의 응이 있으니 마치 큰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실어 가더라도 손상되거나 망가뜨릴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대유는 큰 것이 가진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 겸(兼)

「상전(象傳) 땅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많은 것에서 멀어 적은 것에 더하고 물건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배분다.

내가 전에 불자와 이 상(象)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불자는 “이것이 바로 평등하고 차등이 없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칭’은 저울추라고 할 때의 저울이다. 이른바 ‘물건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배분다’는 것은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저울질하여 그 물건의 경중에 따라 저울추를 이리저리 옮겨 저울이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유가의 도는 ‘이치는 하나이지만 나누어진 것은 다르고理一分殊’, 이단의 도는 ‘모두 사랑하여 나누어짐이 없다(兼愛無分)’이다.

윤리의 큰 것으로서 말하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의지하여 어머니를 섬기나 애정은 동일하다.” 부모가 모두 친(親)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아버지가 무거우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도리는 많고, 어머니는 오히려 가벼우므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도리는 적다. 아버지에게서 넘치는 것을 덜어 어머니에게 더하면 그 사랑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으므로 아버지를 위해서는 참 최복(斬衰服)을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자최복(齊衰服)을 한다. 이는 사랑이 같은 속에서 가볍고 무거운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베푸는 것이다.

“아버지를 섬기는 의리에 따라 군주를 섬기나 공경은 동일하다.” 군주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버지는 상친(常親)이므로 공경하는 때가 항상 많고, 군주는 가까이 하기 어려우므로 그를 공경할 때가 적다. 아버지에게서 넘치는 것을 덜어 군주에게 더하면 그 공경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은혜와 의리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버지를 섬길 때는 일정한 방법이 없지만 군주를 섬길 때는 일정한 방법이 있다. 이는 공경이 동일한 속에서 은혜와 의리를 저울질하여 고르게 베푸는 것이다.

이로부터 미루어 “친척들을 친애함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과 현자를 존경하는 등급”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어질게 대하여 사물을 아끼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각 당연한 순서가 있어 어지럽힐 수가 없다. 이단은 나누어짐이 없으므로 길거리의 사람 사랑하기를 지친(至親)과 차이가 없고, 금수에게 어질게 대하는 것이 동류인 사람과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친할 대상에게는 박절하게 하고 소원한 대상에게는 두텁게 하며, 사람은 경시하고 사물을 중시하여 당연한 순서를 잃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어찌 이를 ‘물건을 저울질하여 공평하게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분수의 도는 고르고 한결같지 않은 듯하지만 고르게 베푸는 방법이다. 분이 없는 것에서 생기는 폐단은 비록 평등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평등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 論語解說(20)

### 논어 해설

- 權貞澤 花山院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 제6편옹야(雍也)

### 제10장

염구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님니다만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도중에서 그만두기 쉽지만 너는 지금 금을 갖고 거기 머물러 있다.”

〔원문〕
冉求曰 非不說子之道이런마는 力不足也로니라 子曰 力不足者는 中道而廢하나니 今女는 畫이로다.〔염구말 비불설자지도이런마는 역부족야로니라 자왈 역부족자는 중도이폐하나니 금너는 획이로다.〕

〔이해〕
일설에는 안회를 칭찬하는 공자에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들한 말을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자는 더 나아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지만 금을 갖고 거기 머물고 있는 경우는 허락고만 든다면 언제라도 나아가갈 능력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한계를 과소평가 하지 말고 더욱 도의 수양에 전념 전력하라는 공자의 충고이다.

### 제11장

공자[孔子]가 자하[子夏]에게 말하였다. “너는 군자적인 선비가 되고 소인적인 선비가 되지 마라.”

〔원문〕
子爲子夏曰 女爲君子儒로되 無爲小人儒하라.〔자위자하할 여위군자유로되 무위소인유하라.〕

〔이해〕
군자의 소인의 분기점은 도의와 이의 중 어느 것의 본지[本志]를 우선 두느냐가 관건이 된다. 자하[子夏]는 비록 학문에는 널리 통달하는 바가 있었으나 그 원대한 기분의 깊이를 깨우침에는 간혹 미흡함을 보였기 때문에 공자가 이점을 지적하여 덕

‘평’이란 저와 내가 그 마땅함을 얻어 남거나 부족함이 없음을 말한다. 사물로 비유하면 그릇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용량이 다르면 그 차이에 따라 많거나 적게 달리 담으므로 각각 그 용량에 알맞고 모두 공평한 것이다. 큰 것에 많이 담는다 하여 남지 않으며 작은 것에 적게 담는다 하여 부족하지도 않다. 이것이 천하에 가장 공평한 것이 아니겠는가? 분(分)이 없으면 많고 적은 구별이 없다. 큰 것을 기준으로 작은 것에 물을 부으면 큰 것에는 겨우 차지만 작은 것은 넘치고 만다. 넘치고 넘치지 않음이 있는 이것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것을 기준으로 큰 것에 물을 부으면 작은 것에는 가득 차지만 큰 것에는 차지 않게 된다. 차고 차지 않음이 있는 이것도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곁애하고 차별 없는 것이 비록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도리어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아! “사물들이 고르지 않은 것은 사물의 본래 모습이다.” 진말하거나 소원하며, 떨거나 가까우며, 크거나 작으며, 가볍거나 무거운 차이가 있는 것이 물리(物理)의 자연(自然)이다. 성인은 이치의 자연에 따라 배플므로 그 분(分)이 차이가 없으나 각각 정의에 알맞아 끝내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차이가 없다. 성인의 마음은 거울처럼 비어 있고 저울처럼 공평하여 아름답고 추함, 굵어보고 쳐다볼을 사물에 따라 형체를 부여하니 성인은 그러 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 본디 차별과 잘못이 없다. 이단은 모두 진말하거나 소원하며, 떨거나 가까우며, 크거나 작으며, 가볍거나 무거운 차이를 무시하고 내 마음의 평등으로써 한결같이 베풀고자 하니, 이는 마치 아름답고 추함을 달리 비추지 않는 거울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가볍고 무거운을 달리나타내지 않는 저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비록 그 마음에 결코 차별이 없기는 하지만 이치에는 매우 큰 차이와 오류가 생기고 또한 의식적으로 억지로 하려는 짓임을 면치 못하니 성인의 마음이 이치를 따라 사사로움이 없는 것만 못하다. 〈다음호에 계속〉



전투에서 패퇴하는 노나라의 군대의 후미를 혼자 지키면서 맨 마지막으 로 입성하였다. 생사의 관두에서 분전해가며 아군을 보호하러 홀로 애쓰기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겸하는 그의 태도를 공자가 높이 산 것으로 여겨진다.

### 제14장

공자가 말하였다. “축타 같은 말 재주와 송조 같은 미색이 없이는 환란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 지금 세상이다.”

〔원문〕
子曰 不有祝鮀之佞이며 而有末朝之美면 難乎免於今之世矣니라.〔자왈 불유축타지녕이며 이유송조지미면 난호면어금지세이니라.〕

〔이해〕
축타[祝鮀]는 위[衛]의 대부[大夫]자어[子魚[로 종묘(宗廟)의 축관(祝板)이었고 이름이 타[鮀]였다. 아첨하는 말재주도 위후[衛侯]의 총애를 받았다. 송조[宋朝]는 송[宋]나라 공자 조로 인물이 잘 생겨서 위영공[衛靈公]의 자기부인 남자[男子]를 위해 부려와 사랑을 받았는데 공자는 구자의 정도[正道]가 쇠락하여 최소환아첨이나 미색이라도 있어야 환란을 모면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시대상[時代相]을 개탄한 것이다.

### 제1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누군들 능히 문을 경유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올바른 도를 경유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원문〕
子曰 誰能出不由戶리오마는 何莫由斯道也오.〔자왈 수능출불유호리오마는 하막유사도야오.〕

〔이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필히 문을 통하여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람답게 올바로 사는 길인 이(義)라는 도를 통하지 않는 점을 개탄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특기고

〈58화〉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이러한 일제의 패망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시점에서, 1944년 4월 20일 중경(重慶)에서 열린 제36차 임정회의에서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국무위원 이시영을 비롯한 14명, 신익희 내무부장(내무부장관), 조소앙 외무부장, 김원봉 군무부장(국방부장관) 등의 7부 부장 체제 내 임정 활동에 김장군은 합류하여 내무차장(내무부차관)으로 활동하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였다. 당시 군무차장(국방부차관)으로 활동한 김홍일(金弘晷, 1898.9.23~1980.8.8) 장군은 평북 용진 출신으로, 권준 장군(1895.5.2~1959.10.27.)이 경복 상주 출신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3년차) 매우 유사한 인생 경력의 생애를 살았다.

김홍일 장군은 어려서 유교경전인 “사서四書”를 독파하고, 선대부터 경영하던 풍곡재(楓谷齋)라는 서재를 부친 김진건(金振健) 선생이 사립학교로 개조하여 민족 교육운동에 동참하였는데, 김장군도 이 학교에서 한학과 신학문을 수학하며 실력을 쌓아 갔다. 하지만 1910년 8월 경술국치를 당하자, 가족들이 만주 봉천으로 이주하였다. 이 때 신식학문을1914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1918년 3월 오산학교를 수석 졸업하였다. 김장군은 오산학교 졸업 직후 남양이

##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駿) 장군<10>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승훈 선생의 권유와 알선으로 남강 선생이 황해도 신천교회에서 설립한 경신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오래지 않아 비밀결사 조직 협의를 벌였다. 그것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김장군은 황해도 안악의 김홍량과 진남포의 임치정 등 황해도 지역의 민족운동자들을 순방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일경은 이것을 꼬투리 삼아 선생을 체포한 뒤, 이들과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기도한 것으로 몰아갔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협의를 부인하여 다행히 석방은 되어 이를 계기로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하였다. 1918년 9월 신의주를 거쳐 중국 안동(지금의 단동)으로 건너갔고, 여기에서 다시 배편으로 상해에 도착하였다.

중국 귀주(貴州) 육군강무학교(講武學校)를 졸업하고 중국 국민혁명군 소위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김장군은 1921년 연해주에서 대한의용군사회 참모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에 폭탄을 제공하였고, 한국독립당 재정부장을 지냈다. 그 해 10월 의열단 김원봉 단장이 조선혁명군사정치관학교를 세워 독립투사를 양성할 때 두장군도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33년 김구와 장개석의 회담 결과 중국 군관학교에서의 한국 독립군 장교 육성 계획이 실현되어 이에 따라 1934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별반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 이때 김장군은 한인특별반의 운영을 총괄한 김구 선

생을 도와 한국 청년들을 독립군 장교로 육성하는데 힘썼다. 1937년 12월에는 김원봉 장군이 이끌던 조선민족혁명당의 청년단원 88명이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분교의 특별훈련반에 입학하자 김홍일 장군은 이들의 교관 임무도 맡았다. 김장군은 교육을 마친 청년단원들 인솔해 무한으로 이동시켰고, 이들이 그해 10월 김원봉 장군이 사령으로 있던 조선의용대를 지원하여 조선의용대원이 중일전쟁터에서 한 중연합작전을 수행케 하였고 1940년에는 대한광복군 참모장으로 항일독립전쟁을 발였다. 1945년 11월 동북보안사령부 고급참모 겸 한교사무처장에 취임하여 재 만주 한인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귀국 편의를 도모하는데 앞장섰다.

권장군과 김장군은 청년시절 국내에서 항일독립운동과정에서 목욕을 치르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의 황포군관학교나 귀주강무학교 출신으로 중국군 장교로 복무하며 장성(將星)으로 진급하였고, 한국 광복군 출신으로 해방 후 한국 국군의 창설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한편 의열단을 창단 단장이며 동지이고 중국 광주의 황포(黃埔)군관학교 4기 동지생인 김원봉 장군 등과는 달리, 권장군이 중국군에 복무하며 직·간접적으로 중국내에서 치열한 한국 독립운동에 관여하고 지원해 온 사실에서 김홍일 장군과 매우 비슷한 경력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그의 약력을 간단히 되짚어 보며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 明心寶鑑

### 명심보감

- 권혁채 (본원중사 연구위원)

### 明心寶鑑 繼續 省心篇 下

險→험함 힘, 羅網(나망)→그물을 늘어놓는 것, 羅→벌릴 라,그물 라, 薦賢(천현)→어진 사람을 천거 하는것, 薦→천거할 천, 布德(포덕)→덕을 널리 퍼는 것, 懷妬(회부)→시기하는 마음을 품는 것, 懷→품을 회, 妬→투기할 투, 報冤→보일→양갚음을 하는 것, 報→갚을 보,冤→원통할 원, 爲患→근심이 되는 것, 雲仍(운잉)→자손, 雲→구름 운, 仍→인할 잉, 후손 잉, 異體(이체)→몸을 다르게 하는 것, 巧語→교어→교묘한 말, 巧→교할할 교, 교묘할 교, 異→다름 이, 體→몸 체, 傷→다칠 상, 召→부를 소

● 神宗黃帝御製에 曰(고종황제어제에 왈) 違非道之財(원비도지재)하고 戒過度之酒(계과도지주)하며 馬必羶蹄(거필택린)하고 交必擇友(교필택우)하며 嫉妬(질투)를 勿起於心(물기어심)하고 讒言(참언)을 勿宣於口(물선어구)하며 胥肉貧者(골육빈자)를 莫踈(막소)하고 他人富者(타인부자)를 莫厚(막후)하며 克己(극기)는 以勤儉爲先 (이근검위선)하고 愛榮少謙和爲首(애중이겸화위수)하며 常事已往之非(상사이왕지비)

(상사이왕지비)하고 每念未來之咎(매념미래지과)하고 若依朕之斯言(약의짐지사언)이면 治國家而可久(치국가이가구)니라.

해설： 신종황제 어제에 이르기를, “사람으로서 정도(正道)에 어긋나는 재물을 멀리하고,정도(程度)에 지나치는 술을 경계하며,반드시 이웃을 가려 살고, 벗을 가려 살라. 남을 헐뜯는 말은 입에 담지 말며, 가난한 동기간을 소홀히 하지 말것이며, 다른 부유한 자에게 아첨 하지 말고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는 것은 근면과 검소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되 겸손하고 화평함을 첫째로 삼아야할 것이며 항상 지나간 날의 그릇됨을 생각하고, 또 앞날의 허물을 생각하라. 만약 나의 이 말에 따르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기히 오래 갈 것이니라.”고 하셨다.

참고： 신종황제 (신종황제－1048－1085)복송의 제6대 황제. 擇隣(택린)이웃을 가리는 것, 擇友(택우)이웃 린(인), 嫉妬(질투)남을 시기하는 것, 嫉→투기할 질, 妬→투기할 투, 讒言(참언)→남을 헐뜯는말, 讒→참소 할,간악할 참, 勿宣於口(물선어구)→입에 내지 말라, 입에 담지 말라. 胥肉(골육)→동기간이나 혹은 친족을 말함, 莫踈(막소)→소홀히 말라, 踈→덜 소, 莫厚(막후)→후하

게 하지 말라. 克己(극기)→자기 욕심을 극복하는 것, 克→이길 극, 勤儉(근검)→근면하고 검소함것, 謙和(겸화)→겸손하고 화평한것, 爲首(위수)→첫째로

삼는다. 咎→허물 구, 依(의)의지할 의(따르다), 斯言(사언)→이 말, 朕→나 짐(황제가 자기를 칭할때소)

● 高宗皇帝御製에 曰(고종황제어제에 왈) 一星之火(일성지화)도 能燒萬頃之薪(능소만경지신)하고 半句非言(반구비언)도 誤損平生之德(오손평생지덕)이라. 身被一縷(신피일루)나 常思織女之勞(상사적녀지노)하고 日食三殮(일식삼손)이나, 每念農夫之苦(매년농부지고)하라. 苟貪妬損(구탐투손)은 終無十載安康(종무십재안강)하고 積善存仁(적선존인)이면 必有榮華後裔(필유영화후예)나다 福緣善慶(복연선경)은 多因積行而生(다인적행이생)이요 入聖超凡(입성초범)은 盡是眞實而得(진실진실이득)이니라.

해설： 고종황제 어제에 말하기를, “한 점의 불티도 능히 만경의 숲을 태우고,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허물어 버린다. 몸에 한오라기의 실을 입었어도 항상 베껴는 여자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고,하루 세끼의 밥을 먹거든 늘 농부의 고생함을 생각하라. 공색하게 미워하고 탐내고,시기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마침내 10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善)을 쌓고 인(仁)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에게 영화가 있리라. 행복과 경사는 항상 대부분의 선행을 쌓는데서 생겨나고 형승(凡庸)을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다 진실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참고： 고종황제(고종황제：1107－1187)는 남송(南宋)의 초대 황제다.

一星(일성)→한점을 말한다. 萬頃(만경)→극히 넓은 면적. 頃→이랑경,半句(반구)→반 마디의 말,극히 짧은 말을 뜻함. 非言(비언)→그릇된말, 誤損(오손)→그릇치고 상치를 입히는 것. 誤→그릇할 오, 損→덜 손, 一縷(일루)→한 오라기, 縷→실루, 織女(적녀)베짜는 여자, 縷→짚 직, 三殮(삼손)→세끼의 밥, 殮→밥 손, 苟貪妬損(구탐투손)→공색하게 탐내고 시기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힘. 苟→구차할 구, 貪→탐할 탐, 妬→투기할 투, 存仁(존인)→인덕(仁德)을 지키는 것. 福緣(복연)→행복의 인연. 緣→인연 얻, 善慶(선경)→좋은 경사, 入聖(입성)→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는것. 載→실을 재, 康→편안 강, 裔→후손 에, 超→뛰출 초, 盡→다할 진

〈다음호에 계속〉